

팔복동 산단 배후지, 친환경 공간으로 변신

전주시, 연말까지 154억원 투입 쿨링 앤 클린로드·물순환 청정길 조성 등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추진

전주시 팔복동 산업단지 배후지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과 쾌적한 환경을 갖춘 녹색마을로 변신한다. 전주시는 올 연말까지 총 154억 원을 투입해 팔복동 신복마을 일원에 친환경 스마트 버스승강장인 '스마트 쉘터'와 식생수로, 인도(쿨링 앤 클린로드), 물순환 청정길 등을 조성하는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목표로 물·대기·자원순환 등 다양한 환경 분야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펼쳐 마을 단원에서 친환경 공간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지난 2020년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

을 계기로 팔복동1가 일원 25만5228㎡ 부지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쿨링 앤 클린로드 △물순환 청정길 △스마트 쉘터 △팔복동 주민센터 그린리모델링 등이다.

가장 먼저 추진된 사업은 스마트 쉘터 조성사업이다. 스마트 쉘터는 미세 먼지, 매연, 한파, 호우 등을 피할 수 있는 친환경 스마트 버스승강장이다. 공기청정 순환시스템, 탄소온열의자와 냉방기 등 편의시설을 갖춘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시는 △팔복주유소 △팔복근린상가 승강장 등 2개소에 친환경 스마트 버

스승강장을 설치했다.

시는 산업단지와 주거지 사이에 있는 도로에 빗물을 활용한 자동살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식생수로 및 인도를 조성하는 쿨링 앤 클린로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마을 내부 도로를 투수블럭으로 포장하는 등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녹색 쉘터 공영주차장 조성 △산복길 식생수로 조성 △스마트 가로등 설치 △쓰레기 배출시설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물순환 청정길 조성도 추진된다.

시는 쿨링 앤 클린로드와 물순환 청정길 등 주요사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노후 산업단지와 도로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으로 각종 환경위험에 노

출된 마을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쿨링 앤 클린로드 구축 △물순환 청정길 조성 △팔복동 주민센터 그린리모델링 등 주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각종 행정절차 이행 후 오는 6월부터 단계별 공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봉정 전주시 도시공간혁신추진단장은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으로 노후화된 팔복동의 주거환경이 친환경 공간으로 새롭게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첫마중권역 '걷고 싶은 도로'로 만든다

8월까지 우아로~도당산로 일부 구간 '전주역세권 보행친화도로 조성사업' 추진



전주역 앞 첫마중길 주변 도로가 '걷고 싶은 도로'로 변신한다.

전주역 앞 첫마중길 주변 도로가 '걷고 싶은 도로'로 변신한다.

전주시는 오는 8월까지 총사업비 20억여 원을 투입해 우아로(구 한양주유소~동신초교)와 도당산로 0.4km 구간을 대상으로 전주역세권 보행친화도로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전주의 관문인 첫마중길을 가로지르는 양측 차로를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다.

사업 대상 지역은 현재 수목의 고사 및 간판 가림, 보도블럭 들뜸 현상 등으로 보행자뿐만 아니라 인근 상인들까지 불편을 겪고 있는 우아로~도당산로 일부 구간이다.

시는 가로수 정비 등을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무질서하게 뒤엉켜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시키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전선들을 정비하는 지중화 사업도 전개해 산뜻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건축물이 아름다운 전주' 만들 것"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



전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조지훈 예비후보가 디자인이 우수한 건축물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공약했다.

14일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건축물이 아름다운 전주를 만들기 위해 용도지역별로 다른 층고, 층수, 용적률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디자인이 우수한 건축물을 별도로 선정해 용적률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현재 도시의 특성을 살리고자 도시계획에 따라 용도, 층수, 높이 등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 생태를 중심으로 도시의 정체성만을 강조하다 보니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도시 경쟁력 또한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이미 건축물 심의 기준에 따라 소규모·공공주택 건립 시 디자인이 우수하거나 녹색건축물(에너지 효율), 제로에너지빌딩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각각 15%, 3~9%, 10~15%를 부여함으로써 다양하고 수준 높은 주거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는 것과 차

이가 있는 것.

건축물 자체가 아름다운 친환경 도시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효과를 불러와 도시의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15분 도시를 통해 전주를 생활이 편리한 도시로 바꾸겠다는 계획에 아름다운 건축물을 더해 도시에 한층 더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도시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모두 잡고자 '건축물이 아름다운 전주'를 만들겠다는 것.

이를 위해 건축물과 경관 심의 기준을 마련해 유니버설 디자인 정신이 담긴 아름다운 건축물과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획기적인 방법으로 주차면을 확보한 건축물 등을 선정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건축물의 상징성이 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는 때론 도시의 위상을 보여주기도 한다"며 "해서 시대의 흐름과 시민의 요구를 충족한 건축물의 기준을 마련하고 층고, 층수, 용적률을 전면 재검토해 스카이라인을 확 바꿔서 건축물이 아름다운 전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유니버설 디자인 즉, 보편적 디자인이 적용된 건축물 확산을 유도해 전주를 새롭게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윤상 기자

책기동도서관에서 만나는 동네책방

전주시, 동네책방과 함께하는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청 로비에 마련된 독서문화 휴식공간인 책기동도서관에서 전주 지역 동네책방과 함께하는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전주시는 올 연말까지 시청 로비 책기동도서관에서 전주지역 동네책방 11곳과 함께 △책방지기가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동네책방과 함께하는 기획강연' △동네 책방별 주제에 따라 책방지기가 선별한 도서를 전시하는 '우동가게(우리, 동네

책방 함께 가게!) 북큐레이션' 등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는 이명규 '에이커북스토어' 대표가 기획한 '독립다큐멘터리 (흰 사진): 애도의 불가능성에 관해'를 주제로 한 동네 책방 기획 강연이 펼쳐진다. 이날 강연에는 다큐멘터리 '흰 사진'을 연출한 박현준 감독과 함께 영화를 감상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외 책기동도서관에서는 △김지혜 교사 초청 '사회과학적 책임감과 입시' (5월 20일) △천주희 작가 초청 '인문 강좌' (6월 23일) △유재석 고전강사 초청 '고전을 읽는 방법' (7월 11일) 등 오는 12월까지 특색 있는 강연이 예정돼있다.

또한 책기동도서관에서는 특정 주제에 맞는 여러 책을 선별해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우동가게 북 큐레이션'도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4월에는 정진오 '혁신 책방 오래된새길' 대표가 참여한 북큐레이션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어 △책방 토닥토닥(5월) △스카프(6월) △에이커북스토어(7월) △잘익은언어들(8월) 등에서 참여해 동네책방 별 다양한 주제로 북 큐레이션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라기 전주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은 "지역 내 동네책방과 함께 시민들이 특색 있는 책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한 콘텐츠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며 "새로운 문화로 지리 잡아가는 동네책방과 협업하여 지역의 독서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건강검진 무료 실시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정혜선)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서비스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해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시행 중인 건강검진 서비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질병 예방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해 실시되며 생애전환기연령(10대)의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4~6월까지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집중홍보 캠페인 기간으로 정해 건강검진 안내 강화 및 수검을 독려하고 있다.

건강검진은 문진 및 진찰, 혈액검사, 간염 검사 및 구강검사 등으로 진행되며 검진 결과와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은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5% 이하)에 한해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진료, 치료, 접종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협조로 진료비용 부담 없이 치료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건강검진 신청은 연중가능하며,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정혜선 센터장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 건강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한 명의 학교밖청소년이라도 놓치지 않고 적기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재난지원금 기부처 '전주사람' 선정

전주시는 66만 전주시민 모두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의 기부처로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의 일상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일으키기 위한 전주시 재난지원금은 이날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시는 재난지원금을 받는 시민 중 기부를 원하는 시민들을 위해 '전주사람'을 기부처로 선정했다.

재난지원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주시방산품권 앱을 통해 기부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기부신청서와 선불카드를 제출하면 된다.

일정 금액을 사용한 후 잔액을 기부할 경우에는 오프라인 신청지만 가능하며,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용기한 만료일(8월 31일)까지 기부 신청을 하면 된다.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은 전주시가 설립한 출연기관으로, 단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건강하고 따뜻한 전주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전주형 SOS긴급지원사업 △사랑나눔긴급지원사업 △복지공동체 지역협력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병관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이사장은 "혼자서는 어렵지만 전주시민 여럿의 힘이 합쳐질 때 행복한 전주시를 만들 수 있다"면서 "재난지원금 기부에 많은 전주 시민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 북부권에 이케아 유치하겠다"

유창희 전주시장 예비후보



유창희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전주 북부권에 가구 기업 이케아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14일 전주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일자리와 만들어 돌아오는 전주를 만들겠다"고 말한 뒤 "세계적 가구 기업인 이케아를 도도동을 포함한 전주 북부권에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지난 2016년부터 임정을 추진했던 충남 계룡점이 이케아 측의 사업 포기 무산됐다"면서 "후보지로 호남권과 충남권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도도동을 포함한 전주 북부권 임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케아는 현재 경기도 기흥과 광명 등 국내 4개 매장을 두고 있으며 매장 당 근로자가 600여 명에 이른다"

며 "이케아 유치로 2천여 명의 직간접 고용 창출과 연간 1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전주를 찾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케아 유치가 확정되면 매장을 중심으로 패션, 식음료, 영화관, 실내스포츠 테마파크 등 테마형 상업시설을 연계, 문화와 관광 복합서비스 시설과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전주의 랜드마크로 개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윤상 기자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14일 전주 시민의 안전한 밥상을 위한 '2022 전주푸드 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했다.

전주푸드 지킴이단 발대식 개최

가족 밥상을 책임지던 주부들이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 지킴이로 나섰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센터장 유정희)는 14일 전주 시민의 안전한 밥상을 위한 '2022 전주푸드 지킴이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한 제5기 전주푸드 지킴이단은 바른 먹거리와 지역 활동에 관심 있는 주부 3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약 7개월간 전주푸드 경기장점과 송천점, 개점 앞둔 효천점 등 3개 매장에서 모니터링 활동을 하게 된다.

주요 활동 내용은 △농산물의 신선도·안전성 점검 △매장운영에 대한 소비자 의견 제시 등이다. 개인 SNS

등을 활용해 로컬푸드 농산물을 홍보하는 활동도 하게 된다.

전주푸드 지킴이단은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전주푸드직매장에서 월 1회 모니터링 활동을 하게 되며, 전주농가체험과 식생활교육, 먹거리 교육 등에도 참여하게 된다.

유정희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은 "지역푸드플랜을 선도하고 있는 전주푸드가 '전주먹거리 정의 실현, 전주푸드광역시화', '전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전주푸드', '나로부터 전주푸드'를 목표로 열심히 뛰겠다"면서 "전주푸드 지킴이단 주부의 따뜻한 마음으로 시선을 사로잡고 전주시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활동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